

(4) 1924년 여름의 검거선풍

1924년 봄은 순천지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지주투쟁이 전개된 시기였다. 순천농민들은 각 면 농민대회, 군 농민대회연합회, 남선농민회연맹, 조선노동총동맹 등 각급 조직을 매개로 1923년 봄부터 공동경작동맹이나 소작료불납(유보)동맹을 조직하는 투쟁, ‘절초동맹회(折草同盟會)’를 조직하는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농민들의 기세가 등등해지자 순천지역의 지주들과 군청 및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천농민들이 겪은 첫번째 시련은, 1924년 여름 순천경찰서가 절초동맹의 회원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일이 시말서를 요구하고, 위 동맹의 회장인 장국현을 업무방해 교사죄로 검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사건은 점차 확대되어 7월 28일에 연합회의 중심인물인 박병두와 순천노동회 간부 이창수, 순천농민회 간부 이영민, 조선일보 순천지국 김기수가 검속되고 이들에 대한 가택수색이 실시되었다.¹⁾ 그뿐만 아니라 순천경찰은 1924년 이양기의 공동경작투쟁을 문제삼아 각 면 농민대회 간부를 검거하는 등 전면적인 탄압을 개시하였다. 일제의 집계에 따르면 19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순천지역에서만 업무방해(25건 137명), 소요 및 상해(4건 4명), 훼손(1건 1명) 등 도합 30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142명이 검거되었다고 한다.²⁾

이처럼 다수의 활동가가 검거되자 서면농민대회는 8월 5일 농민 600명을 모아 간부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초동맹 사건 관련자(박병두·김기수·이창수·장국현·김익두·박인화·김동섭)와 기타 공동경작 사건 관련자(황전면 조찬주·유만근·박중립·조병모, 해룡면 이국찬 등)에 대한 공판은 연이어 계속되었으며, 예상과 달리 상당히 많은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1925년 1월 12일 “절초동맹, 공동경작, 공산선전 피의사건” 공판이 열렸는데 3월 6일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국현은 징역 1년의 실형, 박인화와 김동섭은 집행유예 2년, 김기수는 벌금 20원, 이창수·김익두·박병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³⁾

1) 『조선일보』 1924. 7. 23 · 『동아일보』 1924. 8. 1 · 1924. 8. 8.

2)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 『조선의 군중』, 1926, 48쪽(김집숙, 앞의 논문, 70쪽).

3) 『동아일보』 1924. 8. 21 · 1925. 3. 11 · 『조선일보』 1924. 8. 21.